

# ‘불복장’은 타임캡슐



는 법을 자주 만들어서 분탕과 갈등을 심화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은 어떤지 몰라도 불법문중에서는 있는 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불복장의식만해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례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전승될 것입니다.”

수진 스님은 홀사로서 청정한 수행으로 귀감이 되었던 목담 스님을 시봉하면서 직접 배운 의식과 <복장진언>을 바탕으로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불복장의식을 집전한다. 스님은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과 청도 운문사를 비롯해 서울의 영화사, 구룡사, 공주 성곡사, 일본 큐슈의 대법화사, 브라질 상파울로 길상사 등 30여 사찰의 불복장 의식을 집전했다.

이제 스님은 이 전통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불복장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종교적 가치를 넘어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불복장과 그의 의식은 현재의 생활문화상을 후세에 전하는 은밀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거기에 역사적 전통과 그 전승의 계보가 확실하므로 영산재와 같은 ‘전통작법’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스님의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옹화사 신도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불교 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보존

회는 <한국불교 전통 복장물 조성 절차>라는 책에 불복장의식의 전모를 담아내기도 했다.

“스승님들이 가르치신 대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이제 이 법을 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진 스님은 불복장의식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고 옹화사에 전승관이 설립되면 불복장의식이라는 콘텐츠가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지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복장의식을 치르면서 산다. 그것도 하루 세 번씩. 우리가 뱃속을 채우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말이다.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이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를 상대로 복장의식을 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매순간 부처를 살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수진 스님은 옹화사에서 동자승 16명과 함께 지낸다. ‘좋은 인연’을 따라와 옹화사 동자각(童子閣)에서 살고 있는 동자승들은 철부지들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조식 예법을 모시고 바리춤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수진 스님에게는 그들 또한 부처님이고 그들의 입으로 밥알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경건하고 소중한 복장의식이다.

수진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뭘 쓰실 것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법 제대로 지키다가 잘 전해주는 것이 내 몫인데 그

마져 부족한 게 많으니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기사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글·사진=임연태(시인 본지는설위원)

### 수진 스님은...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덕봉지광(德峰智光) 선사를 은법사로 득도. 목담 성우 대중사로부터 사미, 비구, 보살 계 수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서울 상도동 백운암 등에서 안거경진.

해동염맥 제대 홀사인 목담 대중사로부터 예수재, 수륙재, 가사불사, 비구계 보살계 수계작법, 불복장의식, 점안작법 등 직접 전수받음. 담양 사암연합회 회장 등 지역불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대한불교원효종 중흥을 지낸 법흥(法弘) 스님으로부터 해동염맥을 전수받은 제11대 홀사. ‘목담대중사문집 및 법문 테이프’ 발간. 인도기행문 <부처님 자취를 찾아서> 간행.



한국불교 승려열전

###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②

나라를 잃으니 말도 글도 빼앗겼다.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는 이가 어디엔들 없었을까. 그리고 그 참담함을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서 보니 불전마저 한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 용성의 한글 역경사업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부처를 한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 이 땅의 중생들이 고해를 벗어나는 길을 좀더 쉽게 접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이 땅의 불교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지만, 용성의 세상을 향한 삶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빼앗긴 이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것은 인지상정. 하지만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한글을 통해서 부처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 땅의 부처’는 돌려주지 못했다. 진리를 뛰어 들어가는 길이 있고, 진리로부터 뛰어 나오는 길이 있다. 용성진종으로부터 동헌 완규(東軒完圭, 1896~1983)를 거쳐 불심도문(佛心道文) 스님으로 이어지는 문중을, 용성의 유훈십사목(遺訓十事目)이 전해온다. 1940년 입적에 즈음해 후세에 남긴 것인데 요약해보기로 하자.

## 한문에 갇힌 불전 한글화... 유훈십사목 남겨

첫 번째의 세 가지 항목은 각기 백제불교와 가야 불교 그리고 신라불교 초전성지를 가꾸어 전법의 중심 도량으로 삼으라는 내용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전불(前佛) 시대의 가람제와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의 4대 성지에 대각교당을 설립해 전 인류 만 중생에게 성불인연을 짓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섯째는 전국 명사의 주지 소임을 맡을 때 불사를 일으켜 사부대중에게 성불인연을 지으라는 것이고, 일곱째는 번역한 경전과 저술들을 100만권이 넘도록 간행하고 유포해서 미혹중생의 성불인연을 지으라는 것이다. 여덟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계를 설하되 수계제자에게 자손 중 한 후손을 출가시켜 우리나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홉째는 착실한 교화방편을 놓지 말 것을, 열 번째는 잘난 사람 못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말고 출가한 승려와 재가자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전법에 성불인연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불교의 본래면목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불법을 널리 전해서 성불인연을 짓는 것이야 불자 본연의 사명이나

말할 것도 없겠지만, 스님은 그 구체적인 방편의 하나로 수계제자의 자손 중 후손을 출가하게 해 이 땅 불교의 기틀을 마련케 했다. 이 대목은 이 땅 불교의 초전성지를 가꾸라는 유훈과 서로 맞닿아 있다. 우리 불교에 대한 자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일본 제국의 침략이 막바지 극에 달하면서, 문화적·정신적 침략이 가혹해지던 1940년의 일이니 스님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는다. 세상에 나와 30년을 걸었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불교를 역설했다. 길을 아직 밟고

중생은 아직 지천이었다. 하지만 그 30년 행로를 따라서 길은 놓였고, 중생은 여명을 보았다.

부처님 가르치신 한문의 창살을 벗어났다. 그리고 초전(初傳)의 인연을 되돌아봤을 때, 한국불교는 간혹 미망을 벗어나는 계기를 찾았다. 뿌리를 보았기에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줄기를 따라 잎사귀가 푸르러지는 까닭이다. 초전성지를 가꾸라는 것은 근본을 지키라는 것이다. 근본을 놓지 않았을 때 우리 불



용성진종 조사.

교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것임을, 제국 말기 가장 잔혹했던 침탈기에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스님은 생각하고 있었다.

스님은 1928년부터 불교잡지인 <무아(無我)>를 간행했다. 이 책은 불전들을 조선어(한글)로 번역해 대중에게 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잡지의 말미에 스님은 교훈과 교화지침을 수록하여 간행했다. 교화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생활이 곧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곧 생활인 불교의 생활화(佛敎的生活化) △불사(佛事)로 통하여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 다함께 성불인연 짓는 불교의 대중화(佛敎的大衆化) △주력·간경·염불·참선의 4대 수행으로 이성적 사유의 판단 능력인 불교의 지성화(佛敎的知性化).

우리 불교의 가장 참담했던 시대 중의 하나를 운모로 걸었던 스님의 삶을, 스님 스스로 내걸었던 이 지침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출세간의 도인이 떠났던 속진에 들었으니, 그 곤란함을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님은 그 속진을 헤치고 중생 속을 걷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것은 우리 현대 한국불교의 불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천둥1825?

우리 땅에서 유기능으로 재배한 **황토삼백초와 토종식물**을 5년 동안 정성껏 발효시킨 **효소원액**

천둥이 칠 때 질소가 녹아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이듯이 천둥과 도전도 건강 100세의 꿈을 이루는 버팀목 역할을 기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업무 스트레스로 피곤한 남성  
- 갱년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년여성  
-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험생  
-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 영양보충이 필요한 자취생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로 좋습니다.

## 휘나핫

### 가족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한의학에 두한족열(頭寒足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양생법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목욕법이 반신욕입니다. 휘나핫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손쉽게 물없이 슈퍼블랙디스크를 이용한 효능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반신욕기입니다.

**슈퍼블랙디스크란?**  
자연광물 30여 종의 슈퍼블랙디스크에서 방사되는 400℃의 열이 인체에 안전하게 전달된 T.D.P 반신욕기 휘나핫. 물없이 간편하고 효율 높은 반신욕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찾으세요

### 물 없이 목욕한다? 그래도 몸은 더 가뽀하다

♥반신욕,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요즘같이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남성은 음주 피로가 쌓이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잡다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지루해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반신욕을 하면 하루의 피로를 쉽게 풀어준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반신욕법  
이런 반신욕기는 욕을 입은 채 샤워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회귀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가 공부할 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나핫, 부족한 2%를 채웠다.  
단순 열로만 즐기는 반신욕(열탕 반신욕) 반신욕보다 한 차원 높은 기능성 반신욕기입니다. 반신욕 효과들은 그동안 반신욕을 하고도 뭔가 부족하다 싶은 2%를 특정T.D.P 신기술, 신개념의 휘나핫 반신욕기를 통해 마저 채울 수 있습니다.

## 좋은 품질, 착한 가격의 명품 노니주스

100% 원액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고가에 판매되었던 노니주스-로얄통가노니는 남태평양 천혜의 청정원이 살아있는 폴리네시아 특가 왕국의 무공해 화산성토양에서 자란 100% 노니 원액을 사용한 로얄통가노니를 대중화와 가족 건강의 증진을 위해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100% 원액이라 더욱 좋습니다. 잘 익은 황색 노니 열매만을 엄선하여 150일 이상 장기간 숙성시킨 후 원액이 자연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숙성방법으로 100% 원액을 담았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좋은 선물 노니 노니는 제로칼로리, 프로비타민이 다른 어떤 식물이나 과일보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고급 과일 주스입니다. 그 외에도 180가지 이상의 영양을 주는 성분들 그리고 60여 가지의 성분이 들어 있어 성인들은 물론 자녀에게는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운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운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100% 국내산 참운나무 진액 참운골드

술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꽃 주신지를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계르마를 경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운물을 만들었습니다. 술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믿어서 국내 꽃 산삼뿌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익성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운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휘림건강(주) HWRIM WELLNESS INC. 02.875.0600  
지사 및 영업사원 모집 www.hwinahot.co.kr